

# 亞·太平洋지역의 石油市場현황

—大韓石油協會 弘報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세계 3대 精油製品市場중 가장 빠른 성장과 높은 수익성을 보여 왔으며 中東과 印尼에서의 OPEC정제시설 확장으로 因하여 제품수출에 중요한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 지역에 中東으로부터의 流入量은 최근의 40만b/d에서 80년대末에는 2배가 넘는 85만 내지 95만b/d에 이를 것이다.

결프제품수출의 예상증가분의 적어도 半이상이 결국 이 지역에서 판매될 것이다. 동시에 印尼의 제품수출도 倍加되어 15만 내지 16만b/d에 달하며, 최근까지 23만b/d에 달하는 제품수입은 중지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수년내에 OPEC이 75만b/d 규모의 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최소한의 충격을 의미한다.

극동에서 가열되고 있는 OPEC의 경쟁은 가장 큰 시장인 日本에서 석유소비가 감소하고 他國家들에서는 增加勢가 미미함에 따라 비롯되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전체적인 製品소비는 이미 성숙한 상태의 美国 및 유럽의 시장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까지 극동은 石油소비에서 西유럽을 앞지를 것이다(表-1 참조).

이 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입석유의 의존도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부족한 에너지는 경제성장을 阻害하고 石油는 代替에너지보다 쉽게 이용되곤 한다.

많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自國內 精製業과 판매업을 보호하고 있다. 제품수출을 증대시키려는 OPEC의 희망은 시간을 다룰 것이며, 일본은 自

(表-1)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석유제품의 공급과 수요

(단위: 1,000B/D)

국 가	정제능력		제 품 소 비		
	1983	1990	1983	1990	연성장률
오스트렐리아	722	722	574	620	1.5%
방글라데시	22	22	24	52	10.2%
버 어 마	47	47	23	34	5.0%
중 공	2,000	2,000	1,720	3,500	9.3%
홍 콩	0	0	133	260	8.7%
인 도	779	1,200	706	1,100	5.7%
인도네시아	387	900	480	612	3.1%
일 본	5,020	4,200	4,241	3,950	1.0%
한 국	776	776	472	670	4.5%
말레이시아	205	320	200	320	8.0%
뉴질랜드	74	90	70	75	1.0%
파키스탄	126	127	100	140	4.3%
필리핀	286	286	193	154	3.2%
싱가포르	1,101	1,001	180	180	
스리랑카	50	50	40	48	2.6%
대만	515	515	347	400	1.8%
태국	176	211	247	339	4.6%
총 계	12,286	12,467	9,750	12,454	3.6%

국의 거대한 시장에 장치한 엄격한 제약 조치들을 완화하는 데 동의할 것이다. 또한 OPEC는 이 지역내의 다른 나라에 수출을 확장시키는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OPEC의 제품수출로 인하여 극동 국가들은 석유소비구조에 있어서 輕質油로의 전환에 시기적절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 제품수입의 증가는 이 지역의 시설이 별로 좋지 않은 정유공장들의 高度化施設에 소요될 막대한 투자에 대한 일시적이거나 혹은 장기적인 代案이 될 수 있다. 고도화설비의 과잉이 미국과 유럽시장에서 價格弱勢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극동의 여러국가들은 고도화설비에 본격 투자하기에 앞서 결정을 留保하고, OPEC製品の 수입이 어떻게 될 것인가의 推移를 관망하고 있다.

### 호주—石油輸出國으로 등장

호주는 적어도 수년내에 큰 고객으로서 보다는 태평양시장에서 OPEC국가의 경쟁자로 대두할 것 같다. 호주의 에너지 수출은 가까운 시일내에 대폭 늘어날 것이다. 1984—85 회계연도에 原油 및 제품수출이 15만 8천b/d에 달하여 15만 5천b/d의 석유수입을 약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輕質 Gippsland原油의 수출은 83—84년의 2만 9천b/d에서 4년후에는 4만 내지 6만b/d로 증가할 것이다. Condensate의 수출은 84—85년의 1만 5천b/d로 늘어날 것이다. 精油稅들은 10만b/d 이상의 휘발유, 등유, 경유 및 윤활유 생산량의 1/3을 계속 수출할 것이다.

매년 120만톤 이상의 LPG가 수출되고 있는데 이것은 배스해협(Bass Strait)의 생산량의 3/4에 해당한다. 또한 새로 발견된 쿠퍼분지(Cooper Basin)產 LPG의 대부분인 50만톤 정도가 일본으로 수출될 것이다.

거창한 North West Shelf 계획에 의하면, 매년 600만톤의 LNG가 1990년 안에 일본으로 수출이 개시되도록 되어 있다. 최근의 석탄수출은 연간 3천 5백만톤을 기록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製品輸入의 증가와 호주의 정유시설 감축은 석유회사들에게 새로이 시설전환과 脫黃설비에 막대하게 투자하는 것보다 매력적인 선

택이 될 수도 있다. 만일 Bass해협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만큼 호주에서 탐사결과 새로운 油田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실제 그러할 가능성이 크다.

제품수입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OPEC 원유의 수입을 늘리는 과정에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호주는 이미 약 4만 5천b/d의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쿠웨이트로부터 1/3을, 그리고 싱가포르와 미국으로부터도 비슷한 양을 들여오고 있다.

### 방글라데시—급성장하는 시장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가장 빈곤하고 가장 석유 소비가 적은 국가중의 하나이지만 석유제품시장은 1990년까지 두배 가까이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증가하는 석유수입에 대한 대금지불방법의 문제가 또한 대두될 것이다. 이미 방글라데시는 석유수입대금이 外貨收入의 70%를 점하고 있으며 생산자로부터 차관공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에너지 총수요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自國產 천연가스 사용을 증대시킴으로써 석유수입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으며 외국석유 회사에 의한 석유와 가스탐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계약조건을 자유화한 바 있다.

### 버어마—베일에 싸인 석유시장

버어마가 공식적으로는 석유를 自給하고 있지만 석유제품의 暗거래는 수요를 조장해 왔으며 종종 석유수입을 위한 은밀한 바터거래가 정부에 의해 이루어졌다. 정제시설은 現 소비의 2배를 상회하고 있으나 그중 상당부분이 원유부족으로 인해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이 버어마를 OPEC제품의 잠재적 시장으로 만들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정부의 엄격한 배급을 통한 공급과 현금부족으로 제품수입은 가능할 것 같지 않으나 경유의 부족은 경제에 여러 문제들을 초래하고 있다.

### 中共—막강한 잠재력지녀

中共이 장래의 크나큰 성장잠재력을 지닌 극동에

서 두번째로 큰 석유시장이지만 당분간 순수한 석유수출국으로서 계속 남아 있을 것이다. 中共은 현대화 계획과 西方의 상품과 기술을 수입하기 위하여 석유수출을 통한 外貨 획득증대를 필요로 하고 있다. 中共의 원유 및 원유제품수출은 달마다 큰 폭이 있으나 평균 40만b/d에 추정된다.

석유생산은 1983년에 220만b/d에 약간 못미쳤으며 中共시장내에서 172만b/d가 소비되었다. 中共의 가장 큰 수출제품은 휘발유로 상당량이 美國으로 수출되고, 日本은 中共産 原油의 가장 큰 고객이다. 현재 外國會社에 의해 진행중인 中共近海의 탐사가 성공한다면 中共은 매우 큰 원유수출국이 될 것이다. 美國의 한 石油會社는 中共의 석유생산의 잠재력이 2000년까지는 570만b/d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中共은 제품수입으로의 전환보다 증가하는 국제 석유수요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自國의 경제시설을 확장시킬 듯 하다. 현재 약 200만b/d의 정제능력은 국내수요를 초과하고 있다. 추가정제 시설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外國의 投資가 기여할 역할이 분명치는 않으나 고려될지도 모른다.

中共의 막대한 에너지자원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에너지부족의 곤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외화획득증대에 있어서 석유수출이 차지하는 역할때문에 中共은 內需를 충당할 다른 에너지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석탄보유국인 中共은 석탄생산을 크게 증대시키고 현대화하는 계획을 가지고 시행중에 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잠재력의 水力發電이 未開發 상태에 있으며 核 발전소건설을 추구하고 있는 중이다.

### 홍콩-제품수입 倍로 증가할 듯

극동에서 유일하게 정제시설이 없는 홍콩은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으로 OPEC 제품수출국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홍콩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의 대부분은 싱가포르로부터 들어오고 있다. 지난해의 수요량 13만 3천b/d는 1990년까지 倍로

늘 것이다. 注油所부지가 부족한 실정이며, 기존의 판매업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최근에 쿠웨이트는 항공연료산업을 이곳에 들여와 자국의 제트연료수출을 위한 판로를 확보하였다. 장기적으로 홍콩은 석유에의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고 있다. 예컨대 엑슨은 두개의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차이나 라이트 앤드 파워(China Light & Power)社의 파트너로서 최근에 추가로 2基를 건설중에 있다.

### 印度-自給을 향한 전진

印度의 목표는 석유제품의 自給으로, 제품수입을 대폭 줄이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새로운 近海産 원유의 급격한 증가로 원유수입을 삭감하고 있다. 정제시설은 증가하고 있는 국내 석유생산에 맞추어 크게 확장되고 있다. 1990년까지 印度는 균형조절을 위해 제한된 범위내에서 수입과 수출이 있을 것이지만, 自國의 석유수요량은 모두 생산, 정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의 크래킹시설의 부족으로 주로 中間溜分인 약 10만b/d의 제품수입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중 半은 소련으로부터 들어오고 있다. 印度는 또한 종종 현물시장에서 경유와 연료용 등유의 구매입찰에 참가하기도 한다. 석유수요의 반이상은 철도, 트럭운송용 경유와 취사용 등유가 차지하고 있다.

### 印尼-새로운 수출국으로 등장

印尼의 예상되는 제품수출의 증가와 많은 量을 차지하던 제품수입의 증가는 아시아·태평양시장에 포함 30만b/d에 달하는 충격을 가져오리라 예상된다. 내년 안에 印尼는 자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의 自給뿐 아니라 15만 내지 16만b/d의 제품을 수출할 것이다. 이것은 현재의 7만 내지 8만b/d의 제품수출에 비해 2배나 늘어난 量이다.

1983년에 23만b/d를 기록했던 제품수입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없게 될 것이다. 수입제품의 대부분은 싱가포르에서 들어왔으며, 印尼 국영석유회사인 페르타미나의 위탁정제량은 총 싱가포르 정제량의 거의 1/3을 차지해 왔다.

장기적으로 印尼는 自國의 內需증가에 의해 결

국 제품수출국으로서의 역할은 중지부를 찍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국내공급의 안정이라는 목표아래 거대한 정제능력증대가 착수되었다. 그러나 수요증가율의 극적인 둔화로 새로이 확충된 정제능력의 상당부분이 수출시장용으로 전용되어 왔다.

실리캡(Cilicap)과 발릭파판(Balikipapan)에서의 20만b/d, 두마이(Dumai)에서 8만5천b/d 증설완공으로 총 설비용량은 40만b/d 미만에서 90만b/d 가까이로 늘어나게 되었다. 두개의 수마트라 정유공장도 또한 확장될 것이다. 그러나 印尼의 석유 소비는 1983년에 0.2%의 하락을 기록한 이후 1984년 상반기동안 1%에도 못미치는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제시설을 확장하기로 결정이 내려진 1970년대에는 연평균 12.7%씩 증가되었다. 이같은 증가율 둔화는 정부의 보조금을 인하하기 위해 제품가격을 대폭 인상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印尼의 1억5천만 인구는 아마 1990년대까지는 정제능력에 또 다른 부담이 될 것 같다.

### 日本-조심스러운 시장 개방

日本이라는 커다란 제품시장에 접근하려는 OPEC의 희망은 당분간 크게 좌절될 것 같다. 日本은 수입확대를 위한 제품시장의 문을 매우 천천히 조심스럽게 열고 있으며, 주된 관심은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는 일본정유업체의 보호에 있다. 日本의 제조업자들은 제품수입 규제를 자율화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으나 정유업자들은 이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나프타의 수입은 당시 침체상태의 석유화학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1982년에 규제를 대폭 완화했으며, 화학제품생산이 회복됨에 따라 작년에 나프타의 수입은 약 23만5천b/d로 증가하였다. 低硫黃연료유의 수입은 작년의 9만5천b/d 수준에서 앞으로 5년에 걸쳐 매년 8,500b/d씩 확대하도록 허용되고 있다. 선박용 경유는 3만4천b/d 수준에서 수입하기로 되어 있으며, 제트연료는 작년에 비정상적 기상상태下에서 8,500b/d의 수입이 허가되었다.

日本의 정유업은 태평양시장에서 어느정도 OP

EC의 수출경쟁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 절약과 대체에너지 이용으로 困하여 日本의 석유수요는 감소되고 있으며, 97만b/d의 정제시설이 처분된 후에도 정제능력은 여전히 과잉상태에 있다. 日本의 에너지 공급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3년의 78%, 82년의 62%에서 90년에는 54%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는 原子力, 석탄, LNG에 의해 밀려나고 있다.

원유의 공급과잉과 가격안정의 시대에 日本은 石油政策이 우선적으로 국내정제를 위한 원유수입(소비지 정제주의)에 基調를 두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日本의 항구와 석유시설은 거대한 量의 제품수입을 처리할만한 준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도 하다.

### 韓國-소비지 정제주의

日本과 마찬가지로 韓國도 자국의 중요하고도 급속도로 성장하는 석유시장에 대한 제품공급을 국내의 정유사들이 맡도록 하고 있다. OPEC 제품수입의 선택은 석유제품공급의 융통성을 제고시키기보다는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韓國은 수요증가율을 둔화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석유수입에 관세를 부과하기까지 하고 있다.

큰폭의 가격인상은 최근에 수요증가를 억제하기도 하지만, 빠른 경제회복에 힘입어 1984년 1/4분기에 석유소비는 16.5% 증가하였다. 1986년까지 경유, 등유, 제트유 등이 부족할 것이나, 연료유는 공급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LPG수요량의 약 半 정도는 주로 사우디 아라비아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韓國은 日本과는 달리 국내 정유산업에 대한 OPEC의 투자를 환영해 왔다. 이란은 6만b/d인 산정유공장 지분의 50%를 소유하였다가 1980년에 매각하였으며, 쿠웨이트와 사우디 아라비아는 1981년에 28만b/d의 울산정유공장주식의 50%를 매입할 기회를 사절한 바 있다.

原子力, 석탄, LNG 및 LPG 등이 韓國의 석유의존도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1990년까지 原子力發電은 총發電量의 40%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매년 2백만톤의 LNG가 1987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될 것이며, 그로 인해 국내가스 소비는

3 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말레이시아—국내수요증가 우려

말레이시아는 중요한 원유수출국이면서도 다량의 제품수입국으로 자국의 급속한 석유소비증가를 장기적으로 염려하고 있다. 말라카 정유공장의 건설이 계속 추진된다면 당분간 제품의 자給은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관리들은 수요의 증가가 말레이시아를 순수한 석유수입국으로 전락시키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소비는 매년 8% 증가하고 있어, 작년의 20만b/d에서 1990년까지 32만b/d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현재 4개의 정유공장의 정제능력은 20만 5천b/d이며 원유생산은 44만b/d이다. 원유생산량은 2년안에 60만b/d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재정적 또는 시장문제에 의해 지연될 수도 있다.

말레이시아는 제품의 대부분을 싱가포르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국영 페트로나스는 싱가포르에 있는 4개 정유공장에서 7만b/d를 위탁 정제하고 있고, 기타 정유공장에서 1만 5천b/d를 정제·수입하고 있다. 작년의 수입을 품목별로 보면 重質油가 2만 8천b/d, 고급경유가 2만b/d, 그리고 휘발유가 13,500b/d로 되어 있다.

이미 주요한 LNG수출국인 말레이시아는 이제 국내의 거대한 매장가스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가스, 석탄, 수력발전 등으로 현재의 90%에 달하고 있는 석유의존도를 줄이기를 원하고 있다. 국내의 가스사용은 말레이반도, 사바(Sabah), 사라와크(Sarawak)로 계획되어 있으며, 우선 산업발전을 위한 용도에 주력할 것이다.

### 뉴질랜드—합성부품으로 진출

뉴질랜드는 현재 自國의 석유제품수요량의 약 1/3을 주로 싱가포르에서 수입하고 있다. 제품수입은 1985—86년에는 국내 수요량의 절반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86—87회계연도까지 모빌의 메타놀휘발유화 공정을 이용하는 선구자적인 새로운 합성정유공장 건설로 뉴질랜드는 휘발유 순수출국으로 될 것이다. 뉴질랜드는 여전히 경유는 일부 수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純제품수입은 국내 수요의 1%까지 떨어질 것이다. 새로운 정유공장

외에도 뉴질랜드는 수송용 연료로서 압축천연가스 와 LPG의 사용에 있어서 세계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해 왔다.

새로운 정유공장의 기본원료로서 가스 이외에 뉴질랜드는 가스의 재래식 이용을 늘리고 자국産 Condensate 생산량을 늘림으로써 원유수입을 줄이고 있다. 마우이(Maui)의 Condensate 생산량은 현재의 8천b/d 미만에서 1988년까지 1만 4천b/d로 증가가 기대된다. 금년 말경에 뉴질랜드 최초의 원유생산이 3,600b/d 정도로 개시될 것이다.

새로운 합성정유공장은 1억 5천만cf/d의 가스를 15,500b/d의 휘발유로 전환시킬 것이며 이 量은 하루 수요량의 1/3에 해당한다. 새로운 재래식 정유공장의 확장완료로 약 5천b/d의 휘발유의 공급 과잉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세계 석유가격의 하락으로 뉴질랜드의 새로운 합성정유공장은 당초에 계획하였던 만큼의 수익성은 거두지 못할 것이나 그래도 상업적인 성공이 기대된다.

### 파키스탄—석유수입 감소할 듯

파키스탄은 自國의 경제성장을 압박하고 있는 에너지부족에도 불구하고 OPEC 석유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축시킬 것 같다. 정유시설은 이미 국내수요량의 대부분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최근의 석유발견으로 정부는 5년 이내에 원유의 자給을 예상하고 있다. OPEC제품의 輸入이 수급 균형조절의 역할 이외에 커다란 새로운 시장침투로 보여질 것 같지는 않다. 정부는 최근에 원유수요량의 90%를 수입하는 비용이 外貨收入의 절반에 상당하는 점을 염려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정유공장들은 약간의 연료유와 나프탈을 수출하고 중간유분을 수입하고 있다.

천연가스는 파키스탄의 주요한 에너지源이다. 보다 현실적인 油田渡 가격은 생산업자들의 새로운 탐사와 개발계획을 촉진하고 있지만, 최근의 가격인상으로 가스사용 증가율은 극히 미미하다. 水力은 이미 중요한 電力源이며 原子力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 석탄은 대부분이 低質이다.

### 필리핀—제품수입 受容態勢

역사적으로 필리핀은 주로 원유를 수입하여 국내

에서 정제해 왔으나 OPEC제품의 장래 시장이 될 것이다. 제품수입이 정유공장에 대한 고도화시설에의 신규투자보다 장래 수요량의 수급균형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보다 경제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현재의 제품수입은 매우 미미하지만 중간유분의 需給不均衡이 예상된다.

1987년까지 중간유분은 연료유(29%)와 휘발유 수요량(16%)을 앞질러 국내수요의 4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간유분의 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제시설의 교체가 진행되어 있다. Visbreaker 또는 Hydrocracking의 건설이 검토중에 있다. 그러나 OPEC제품의 輸入이 가격만 적정하다면 보다 경제성 있는 대안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현재 필리핀은 경유 1,350b/d과 LPG 1,700b/d을 수입하고 있을 따름이며 연료유수입은 1983년의 3만4천b/d에서 1만b/d로 삭감되었다. 휘발유의 수출은 1983년 6,600b/d로부터 4,700b/d로 떨어졌다.

석유소비는 대체 에너지사용 절약,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국내가격보조금의 축소 등에 기인하여 대폭 줄어들었다. 그러나 수요감퇴는 1986년까지는 바닥권에서 벗어나, 80년대 말에는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수요는 1979년 약 23만b/d에서 86년에는 13만b/d로 떨어졌다가 90년에는 15만4천b/d로 다시 상승할 것이다. 석유는 1973년 發電의 83%를 담당하였으나 87년에는 14%에 불과할 것이다. 原子力과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중에 있으며, 시멘트산업은 연료를 석유에서 석탄으로 전환하였다.

### 싱가포르-위기에의 대처방안 모색

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精製센터이며 극동의 전통적인 중심도시로서 싱가포르는 OPEC의 제품수출경쟁에 정면으로 맞설 것이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비축과 무역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가장 큰 고객인 印尼를 잃은 것을 만회하기 위하여 새로운 現物원유의 위탁처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싱가포르정부는 또한 私企業과 협력하여 비축과 유통시설을 크게 확장하려 하고 있으며, 정유공장의 시설高度化에 투자를 위한 租稅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정유업체는 환경변화에

적응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석유회사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재평가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전략적 위치와 잘 발달된 하부구조라는 마켓팅상의 강점뿐만 아니라 고도화 정제시설의 처리량에 의하여 지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정제능력을 줄일 것 같다.

싱가포르 정유업체는 貿易業者뿐 아니라 일부 產油國들이 싱가포르內에서 원유를 貨加工하여 계속 확대되고 있는 제품의 現物市場에 판매하기를 바라고 있다. 사실상, 싱가포르의 貨加工費 下落이라는 메력으로 인해 극동국가들은 새로운 추가정제시설계획을 연기할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다. 예컨대 꽤 큰 임가공고객인 말레이지아는 300억달러에 달하는 18만b/d의 말라카정유공장 건설계획을 백지화한 바 있다. 정유업자들은 印度, 中共과 임가공계약을 지속시키기를 원하며 中東產油國에게 새로운 계약을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 정유업체는 OPEC제품수출의 확대와 국내 정유업체를 보호하려는 극동 여러나라들의 노력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일부 정유업자들은 90년대초에 극동에서는 需給均衡이 회복되고 印尼와 中共에서는 석유소비가 예상보다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일부에서는 앞으로 장기간동안 싱가포르의 精製분야에서의 역할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스리랑카-다양한 선택가능

국영석유회사인 실론석유(Ceylon Petroleum)는 연료유를 중간유분으로 전환시킬 새로운 고도화설비를 건설할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제품수입국으로서 계속 남아 있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남겨두고 있다. 장래의 시장추세가 향방의 열쇠가 될 것이다. 만일 연료유가격이 가스오일에 비하여 強勢를 보인다면, 계속적인 제품수입을 선택할 공산이 클 것이나, 중간유분에 비하여 弱勢일 경우에는 전환시설의 건설이 촉진될 것이다. 공식적으로 스리랑카는 경유, 등유, 제트유의 부족분에 대하여 현물시장에서의 공개입찰을 통하거나, 이웃 印度와 제품교환을 통하여 대처하고 있다. 실론석유의 해외 임가공에 의한 수입은 비경제적인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이 방법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

### 대만-석유수요증가 둔화

대만의 석유소비 급증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석유소비는 지난 4년동안 크게 침체되었다. 그 이전 5년 동안에는 2배의 증가를 기록한 바 있다.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1975-79년 기간의 16.8%의 높은 증가율에 비해 연평균 1.5%에 불과한 증가율을 보일 것 같다.

이것은 대만이 거대한 정제시설의 가동을 위하여 원유를 계속 수입할 것임을 의미하며 현재의 정제 능력으로는 국내제품 수요를 충족시키고도 약간의 잉여분을 수출할 수 있다. 中東으로부터 연료유를 처음으로 수입하기 시작한 國家중의 하나인 대만은 이제 연료유를 수출하기도 한다. 대만의 제품수요는 점차 輕質化되고 있다.

대만은 에너지공급량중 석유의존도를 2차석유위기 이전 79%, 현재의 61.5%에서 90년까지 44.5%로 낮출 계획이다. 原子力과 석탄은 發電用 석유소비를 70년의 42.6%에서 20.5%로 떨어뜨릴 것이다.

### 泰國-OPEC의 잠재적 시장

泰國은 비교적 量은 많지 않으나 빠르게 성장하는 석유제품시장이며, 이미 상당한 量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시장에 진출하려는 OPEC 정유수출업자들의 성공여부는 제품을 대형 유조선으로 경쟁력있는 가격에 引渡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는 주로 싱가포르 정유공장에서부터 수입하고 있다. 작년에 泰國은 약 4만3천b/d를 수입하였는데, 주로 경유와 重油이며 약간의 등유도 포함되어 있다. 수요는 금년 25만b/d에서 95년에 약 40만b/d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계획은 정제시설을 현재의 17만5천b/d에서 88년까지 21만1천b/d로 확장시키는 것이다.

정부의 가격정책과 경유와 LPG의 代替로 휘발유의 소비는 서서히 감소할 것이다. 천연가스소비의 증가는 석유소비를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액화천연가스도 자동차연료로서 이용될 것이다. \*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 84. 10. 15〉

### □ 漫 評 □

현原油價 인하냐, 固守냐!

